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영희¹, 이은미^{2*}, 오윤정³

¹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Young-Hee Cho¹, Eun-Mi Lee^{2*}, Yun-Jeong Oh³

¹Professor, Dep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³Professor, 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73명으로, 자료수집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2년 9월 10일에서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760, p<.001$), 의사소통능력($r=.600, p<.001$), 대인관계유능성($r=.45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은 감성지능($\beta=.543, p<.001$), 의사소통능력($\beta=.433, p=.001$), 대인관계유능성($\beta=.283, p<.031$)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총 설명력은 59.9%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교육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대학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3 nursing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G Cit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0 to October 10, 2022.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5.0 program.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r=.760, p<.001$), communication competence($r=.600, p<.001$), and interpersonal competence($r=.451, p<.001$).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clude emotional intelligence($\beta=.543, p<.001$), communication competence($\beta=.433, p=.001$), and interpersonal competence($\beta=.283, p<.031$). The total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59.9%, and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to be the main influencing factor.

Key Words : Nursing student,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is study was supported(in part) by research funds from Nambu University, 2022.

*Corresponding Author : Eun-Mi Lee(jjang9312@nambu.ac.kr)

Received September 12, 2023

Accepted November 20, 2023

Revised September 21, 2023

Published November 28, 2023

1. 서론

대학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잠재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대학생은 수강할 교과목 선택, 교내 비교과 활동 참여, 취업 준비 등 고등학교 때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대학생활에서의 대부분의 관리를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2]. 이러한 새로운 요구와 과업들에 대한 적응은 개인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는 반면, 부적응 경험은 좌절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손실이 일어난다[3]. 또한 대학생활적응은 계열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세부 전공별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

간호대학생은 타학문 전공 학생들과 다르게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높은 수준의 학업량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4년 동안 거치게 된다[4].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업 및 현장실습, 동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 형성, 간호사 면허시험 등의 주요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대학생활동안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3]. 또한 자신의 관심과 적성보다는 높은 취업률과 주변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2] 입학부터 졸업 시까지 대학생활에서 학업적,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1]. 대학생활적응은 지식습득 뿐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과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5].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예비간호사로서의 성인 초기에 제시된 발달 과업 달성과 임상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본요건으로[6] 단순한 학교적응이라는 의미를 넘어 졸업 후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에 대한 적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5].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 및 조절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7].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 문제해결과 긍정적 사고를 통해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보인다[8].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명확히 기술하는 능력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거나 변화하는 환경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9]. 특히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함양은 바람직한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10]. 대인관계유능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11]. 이는 사회적으로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며 개인이 성장 발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12] 특히 미래의 간호사로서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요구받는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역량이다[1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14-16]에서 자아탄력성, 돌봄행위,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감성지능이 관련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도 관련성이 있다고[11,13] 알려져 있으나 이들 변인간의 관계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자료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관련 변인의 수를 8개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60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0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7부를 제외하고 총 173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Wong와 Law[7]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Jung[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 감정의 사용, 감정의 조절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본 연구에서는 Rubin [9]의 ICC(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을 Hur[17]가 수정 보완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노출, 사회적 긴장 완화,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지,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목표 간파, 반응력 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Hur[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3.3 대인관계유능성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은 Buhrmester 등[11]의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 ICQ)를 Han과 Lee[12]가 번안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관계형성, 권리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 관리, 자기노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과 Lee[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3.4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은 Park[4]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대인관계, 전공 수월성, 전공 만족, 학업 충실도 대처 역량, 취업 준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대학생활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셋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확인하였다.

넷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적응 차이는 Table 1와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9세였고, 여성이 132명(76.4%)으로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98명(56.6%), '2학년'이 75명(43.4%)이었다. 학업성취수준은 평균이 109명(63.5%)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보통' 91명(52.6%), '만족' 79명(45.6%), '불만족' 3명(1.8%) 순이었다. 간호학과 지원선택 동기는 '취업고려'가 74명(43.7%)로 가장 많았고, '지인의 권유' 55명(32.2%), '적성과 관심' 34명(20.8%), '성적 고려' 10명(3.9%)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F=7.10$, $p=.001$), 간호학과 선택 동기($F=10.78$,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 점수는 3.52 ± 0.48 점,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76 ± 0.39 점, 대인관계

Table 1. Differences of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	Adaptation to college life		
			M±SD	t/F(p)	Scheffe
Age(year)	20 ~ 23	21.59±4.13	3.72±0.24	0.58	
	≥24		3.75±0.41		
Gender	Male	41(23.6)	3.80±0.40	1.88	
	Female	132(76.4)	4.02±0.45		
Grade	1 grade	98(56.6)	3.85±0.25	2.24	
	2 grade	75(43.4)	4.11±0.49		
Academic achievement	Well	27(15.7)	4.02±0.34	0.51	
	Average	109(63.5)	4.00±0.36		
	Poor	44(20.8)	3.98±0.5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79(45.6)	3.98±0.30	7.10 (.001)	a,b)c
	Common ^b	91(52.6)	3.81±0.42		
	Dissatisfaction ^c	3(1.8)	3.70±0.35		
Reasons for choosing a nursing major	Employment consideration ^a	74(43.7)	4.05±0.51	10.78 (.001)	a,b)c,d
	Aptitude & interest ^b	34(20.8)	4.10±0.35		
	Recommendation of the associated people ^c	55(32.2)	3.69±0.41		
	High school grade & score ^d	10(3.9)	3.71±0.37		

유능성 점수는 3.59±0.41점,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3.71±0.44점이었다.

관계가 있었으며($r=.410, p<.001$),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r=.400, p<.001$), 대인관계유능성과 의사소통능력($r=.502, p<.001$), 대학생활적응과 감성지능($r=.760, p<.001$), 의사소통능력($r=.600, p<.001$), 대인관계유능성($r=.451, p<.001$)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173)

Variables	M±SD	Min-Max
Emotional intelligence	3.52±0.48	3.00-4.78
Communication competence	3.76±0.39	2.15-4.90
Interpersonal competence	3.59±0.41	2.90-5.00
Adaptation to college life	3.71±0.44	2.00-4.51

3.3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

3.4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유능성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 간호학과 선택 동기를 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F=158.54, p<.001$), 설명력은 59.9%로 나타났다. Dubin-Watson 통계량은 1.685로 자기상관이 없고, 공

Table 3.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N=173)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p)$	Communication competence $r(p)$	Interpersonal competence $r(p)$	Adaptation to college lif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Communication competence	.410 (.001)	1		
Interpersonal competence	.400 (.001)	.502 (.047)	1	
Adaptation to college life	.760 (.001)	.600 (.001)	.451 (.001)	1

차한계(Tolerance)가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은 감성지능($\beta=.543, p<.001$)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사소통능력($\beta=.433, p=.002$), 대인관계유능성($\beta=.283, p=.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N=173)

Variables	B	SE	β	t	p
Emotional intelligence	0.50	0.07	.543	8.76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0.23	0.08	.433	4.52	.002
Interpersonal competence	0.16	0.07	.283	3.45	.003

*Adj R=.599, F=158.5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및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3.52 ± 0.48 점으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Do[18]의 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1, 2학년의 경우 자신과 타인의 감성 인식 및 조절을 배우는 교양 또는 전공기초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감성지능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19]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확인되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수준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3.76 ± 0.39 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eo[10]와 비슷한 결과이다. 2학년의 경우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량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닌 후천적으로 길러지므로 졸업 시점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유능성은 3.59 ± 0.41 점으로 Kwon 등[13]에서 1-4학년까지의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0]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가 1, 2학년으로 국한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간

호대학생은 고학년이 될수록 과도한 학습량과 경직된 임상실습 분위기가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므로 학년의 특성에 적합한 대인관계유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은 3.91 ± 0.44 점이었고, 간호학과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4]과 Oh 등[2]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을 확인한 Park과 Byun[5]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은 1학년과 취업에 성공하고 졸업을 준비하는 4학년의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2, 3학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성공적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에 입학한 시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유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의 여러 변인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3, 18, 19, 21]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활용하여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간호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은 감성지능의 일부에 포함되는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22]. 따라서 입학 후 간호학과에 만족스러운 몰입을 통한 행복감 향상을 가져오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돕는 체계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18-19]와 일치되는 결과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간호학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학생활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대학생활적응을 59.9%로 설명하였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19, 24, 26]와 유사한 결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감성지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서 활용능력과 스트레스 대처기전인 감성지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3, 6, 19] 이는 대학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가져오고, 스스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수준 높은 간호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이 감성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을 키우고 대학생 활적응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이고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유능성과 대학생활적응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성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각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을 고려한 간호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Y. Park.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 [2] Y. J. Oh., E. S. Lee., M. S. Park & E. M. Lee. (2021).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787-797. DOI : 10.37727/jkdas.2021.23.2.787
- [3] S. S. Sim. (2022). Relationship among Psychosoci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4), 809-819. DOI : 10.22251/jlcci.2022.22.4.809
- [4] M. W. Park.. (2021).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VID-19.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3(6), 4817-4830.
- [5] H. J. Park., E. K. Byun & H. J. Yang. (2019). Influence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627-636. DOI : 0.35873/ajmahs.2019.9.12.056
- [6] M. Y. Kim & E. K. Byun. (2022).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1), 105-113. DOI : 10.17703/JCCT.2022.8.1.105
- [7]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2-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 [8] H. W. Jung.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Logic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Labor.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s Review*, 30(3), 107-132. DOI : 0.29214/damis.2011.30.3.005
- [9] R. B. Rubin. (1990). Communication Competence. Speech Communication: Essays to Commemorate the 75th Anniversary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94-129.
- [10] J. Y. Seo. (2019). Relationship among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and Perceived Peer Group Caring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4), 61-71. DOI : 10.34089/jknr.2019.3.4.61
- [11]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 Pers Soc Psychol*, 55(6), 991-1008.
- [12]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13] S. H. Kwon., M. J. Hong., M. Ryu & H. Y. Shin, (2022). Infl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haracter on Caring Efficienc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4), 411-420.
DOI : 10.5977/jkasne.2022.28.4.411
- [14] S. H. Choi. (2018). Effects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148-156.
DOI : 10.5762/KAIS.2018.19.11.148
- [15] B. R. Cho. (2023). Domestic Research Trends Related to University Freshman'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3(8), 15-25.
- [16] S. A. Choi., M. H. Ryu., J. H. Yoo & S. H. Park. (2023).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Major, and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in COVID-19 Crisis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1), 333-346.
DOI : 10.37727/jkdas.2022.25.1.333
- [17] G.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18] S. G. Kim & E. S. Do. (2019).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231-239.
DOI :10.5762/KAIS.2019.20.8.231
- [19] S. J.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8(2). 103-113.
DOI : 10.12934/jkpmhn.2019.28.2.103
- [20] H. S. Jang & M. J. Lee. (2023).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Speech,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22(1). 83-124.
DOI : 10.51652/ksmca.2023.22.1.3
- [21] M. H. Lim. (2018).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25-233.
DOI : 10.5762/KAIS.2018.19.9.225
- [22] Y. H. Oh & M. S. Park. (2020).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reshman in Nursing College: Mediation Effect of Empathy 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8), 331-341.
DOI : 10.14400/JDC.2020.18.8.331
- [23] Y. M. Han & S. H. Kim. (2017). Effect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124-134.
DOI : 10.5762/KAIS.2017.18.8.124
- [24] J. I. Kim. (2018).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53-262. DOI : 10.5762/KAIS.2018.19.5.253
- [25] K. A. Kim. (2023).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Abil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in Some A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 520-530.
- [26] M. J. Seo & J. J. Oh.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4), 8252-8264.
DOI : 10.5392/JKCA.2021.21.04.815

조 영 희(Young-Hee Cho)

[정회원]



- 199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0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2016년 3월 : 기독간호대학교 교수
- 2016년 4월~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윤리교육, 임상교육, 도구개발
- E-Mail : choyh@kwu.ac.kr

오 윤 정(Yun-Jeong Oh)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3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건강사정, 간호교육
- E-Mail : agnes@nambu.ac.kr

이 은 미(Eun-Mi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13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3월~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정신건강간호, 의사소통
- E-Mail : jjang9312@nambu.ac.kr